

가을의 감상(感傷)

우수수 비오는 소리에 놀라 창을 열었더니, 바람이 뜰 앞의 오동나무
잎을 희롱하는 소리요, 별도 자지 않고 열사흘 둥근 달까지 하늘 한복
판에 해말썽 밝다. 벌써 가을이로구나.

창을 닫았으나 못 생각이 설레어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 마
루 끝으로 나갔다.

「사람이란 무엇이며, 삶이란 무엇이나?」

문득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며 늘 잊히지 않는 두 여인의 환상이 눈앞
에 떠오른다.

내가 교토[京翻]에 있었을 때 일이다. 어느 봄날 학교에서 군사 교련
의 야외연습이 있었다,

나는 중국군대의 후행군(後行軍)모양 「변당(辨當)」을 하나 차고 어슬어
슬 뒤를 따라갔다.

나의 마음은 지향 없이 산으로 들로 떠돌았다.

이제 압천(鴨川)을 격하여 한창 맹렬한 산병전이 전개되었다.

바로 그때 나 있는 쪽을 향하여 언덕 위로 팽이를 메고 한 젊은 여인
이 싱글벙글 웃으며 건들건들 걸어왔다.

나는 그의 다시없이 튼튼한 몸집과 명랑한 웃음에 끌리어, 그가 멀리

어느 농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에게서 돌리지 못하였다.

함박꽃같이 온 얼굴에 활짝 핀 그의 웃음은 삶의 기쁨, 그것의 상징 같았다.

「삶이란 기쁨이다.」

들을 하나 쥐어 압천 건너로 힘껏 팔매를 쳤다. 나는 그날 종일 행복스러웠다.

그리고 그 뒤로도 그의 환상이 떠오를 때마다 잠깐 동안 모든 시름을 잊고 삶의 기쁨을 즐긴다.

그러나 삶이란 기쁨만이 아닌 것 같다. 삶의 기쁨의 상징 같은 이 여인의 환상이 나타날 때마다, 외롭고 쓸쓸한 얼굴을 한 한 여인이 조심조심히 그 뒤를 따라온다.

이는 내가 후쿠오카(福岡)에 있을 때 일이다.

어느 가을날 H군과 들로 산책을 나가서 우주니 인생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, 그런 이야기 끝에는 누구나 다 그런 바와 같이 돌이 다 서 글픈 마음으로 묵묵히 하숙으로 돌아오고 있었다.

거의 인가 근처에 왔을 때 우리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쓸쓸한 가을 들을 향하여 하염없이 걸어가는 버들가지와 같이 유약하고 밤보다도 칙올한 얼굴을 한 한 여인을 만났다.

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거의 무의식적으로 발을 멈추고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. 다시 발을 돌려 하숙으로 돌아왔으나 어쩐지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졌다. 그가 걸어가던 그 방향에는 들 가운데에 시내가 흐르고, 그 시내를 조금만 타고 내려가면 철교가 있고, 곧 바다와 접한다.

그리하여 그 부근에서 철도자살이나 투강자살을 하는 사람이 적이나 많다고 하며, 그곳에서 죽은 원혼들이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차바

귀 밑으로나 강물 속으로 불러들인다고 한다.

나는 그의 일이 마음에 끼어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, 조간신문을 조바심히 기다려 전날 저녁에 그 부근에서 아무런 자살사건이 없었음을 보고 비로소 적이 마음을 놓았다.

그러나 그 뒤에도 며칠 동안 나는 신문 사회면에 더욱 주의가 끌렸으며 오래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일이 아주 잊혀지지 않는다. 황혼을 타고 쓸쓸하고 애처로운 얼굴로 가을 들을 향하여 서글피 걸어가던 그 여인은 삶의 외로움과 서글픔, 그것의 상징 같았다.

「삶이란 기쁘고도 서러운 것. 즐겁고도 외로운 것.」

나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삶의 얼굴을 본다.

내가 즐겁고 기쁠 때는 언제나 저 팽이를 메고 싱글벙글 웃던 그 여인이,

「그렇소, 삶이란 이렇게도 기쁜 것이요.」

하고 소리쳐 준다.

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는 언제나 어두워 가는 가을 들 속으로 사라진 그 여인이,

「그래요, 삶이란 참말 외롭고 쓸쓸한 것이야요.」

이렇게 한숨으로 나를 위로하여 준다.

함박꽃같이 웃던 그 여인보다도 고개를 숙이고 가을바람이 말을 달리는 들로 사라진 그 여인이 이 밤에는 몹시도 그림다. (8월 12일 오전 2시)

《조광》, 창간호, 1935. 11. 11)